

연중 제22주일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6.08 **30**

[가해] 제2553호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마태 16,26)

오늘의 전례

입당송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제1독서 예레 20,7-9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
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
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으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제2독서 로마 12,1-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6,21-27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
옵니까!

소리주보
QR코드

▲ 2026년 단계별 사제(4~7년차)평생교육, 8월 17일~28일까지(제주 엠마오연수원)

†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일의 강론

성토마스성당 주임 | 김재호 마티아 신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 본 한 주였다면 이번 한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나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욕심을 부리는 삶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살며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칫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니

까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마치 내가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내가 하느님께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즉각 하느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이며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갑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하느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만 생각하며 나의 욕심을 채워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놓여있는 수많은 걸림돌을 하나씩 치워 나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묵상**

말씀 KEY WORD

목숨 | 프쉬케(ψυχή)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얻습니다. ‘목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프쉬케’입니다. 숨, 호흡 등의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나라는 존재 전부를 가리키는 말마디이지요.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 우리는 내려놓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실은 냉정한 셈법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복음 26절은 온통 시장의 언어로 짜여 있습니다. 얻다(κερδαίνω, 벌어들이다), 잃다(ζημιόομαι, 손해보다), 바꾸다(ἀντάλλαγμα, 맞바꿀 값). 장부를 펴놓고 계산하는 사람의 어휘입니다. 제 목숨을 위해 무엇을 얻을 것이고 내려놓을 것인지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하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어휘들입니다.

사실 목숨을 잃는 것도, 그 목숨을 얻는 것도 우리 자신이지요. 그러나 그 목숨이 전부인 양 움켜쥐기만 하는 삶은 그 목숨의 참된 주인이신 분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움켜쥔 손을 펼 수 있어야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셈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이사 2,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요한 10,10 참조).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묵상하고 그 생명을 지탱해 주는 지구를 소중히 여기도록 다시 한번 초대받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이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나라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이사 2,4)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변화되는 시대를 예언하였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앗아가고, 가족을 해체하며, 수많은 강제 실향민을 만들고, 공포와 불의와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게다가, 흔히 무장 분쟁과 환경 훼손이 서로 맞물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과 공기와 같은 필수 자원들을 오염시키며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냅니다.

앞서 말한 위기들은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은 충실성, 서로에 대한 사랑, 창조 세계의 선물에 대한 존중 안에서 열매 맺는 마음의 회개도 요구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구조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또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칼

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이사 2,4)고 한 예언자의 호소는 국가들을 향한 전망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해악을 생명으로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파괴를 위하여 사용되던 것들이 그 방향을 돌려,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굶주린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피조물을 보호하는 데에 쓰일 수 있습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진정한 도구는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진리, 대화, 인내, 선행, 정의, 자비, 이해, 배려,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평화를 추구하고 피조물을 돌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시어, 우리 시대에 참으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바꾸고, 복음의 약속을 세상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며, 창조 세계 전체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차게 해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레오 14세 교황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333



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구 교구대회 홈스테이 가정 2차 모집

■ 기간 2026.8.11. ~ 2026.10.31. ■ 자세한 내용은 공문(천대교 2026-157)을 참조해 주세요.

2.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대구 교구대회 해외 참가 신청 현황(8월 20일 기준)

총 2,194명 ((대)주교 12명, 성직자 80명, 수도자 67명, 젊은이 2,035명)

구분	현황
참가 국가	16개국
(대)교구	12개
수도회	3개
본당 단위 신청	9개
기타 단체 그룹	4개

신청국가

과테말라, 대만, 독일,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이탈리아,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일부 유다지도자들은 율법 규정을 내세우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을 모독하며 거짓 예언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마태 5,17-18) 규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유다지도자들의 율법 해석 방향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지도자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율법을 해석하십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마태 22,36)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마태 22,37-40) 율법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지침이라 말씀하십니다.

일부 유다지도자들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잊고, 율법에 나열된 글자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많은 이들을 단죄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는 행위를 가려내고 평가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한 치유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회와 교회에도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로 나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과 평가만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사랑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판단과 평가도 필요하지만 용서와 격려를 통해 새롭게 살아갈 발판을 놓아줄 때, 희망이 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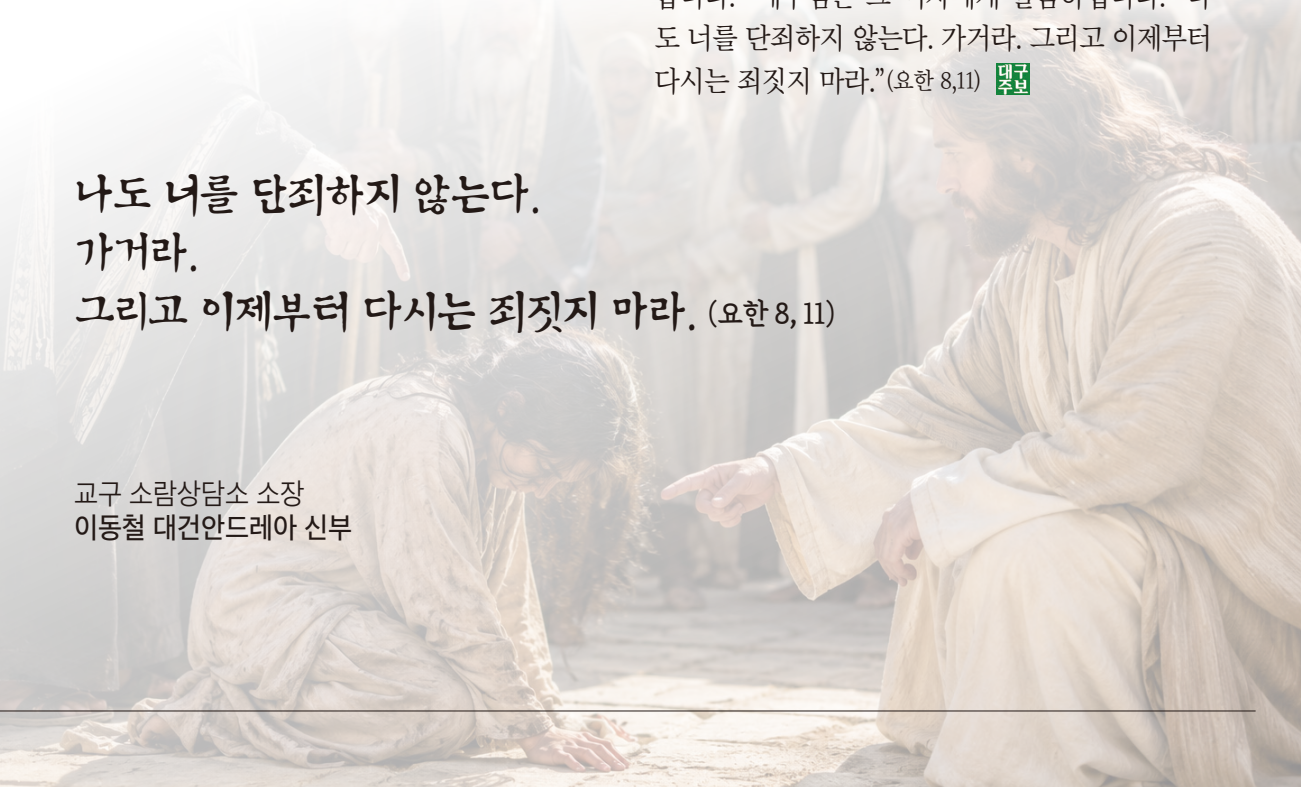
요한 8,2-11의 내용을 되새겨 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내세웁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복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요한 8, 11)

교구 소람상당소 소장
이동철 대건안드레아 신부



외방전교회 대표 선임과 페랑 신부의 위독

4월 30일(수)

내가 불참한 가운데 시험을 끝낸 신학생들이 4개월 반 동안의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러 왔다. 부제가 모두의 이름으로 내게 용서를 청했으므로, 그들의 회개와 훌륭한 결심이 입증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 용서를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타케 신부가 1시 기차로 도착했다. 그는 페랑 신부가 부산에서 일을 매듭짓고자 하기에 부산 쪽으로 가도록 내버려두었다고 한다.

5월 1일(목)

뤼텔 주교의 연락으로 외방전교회 주교들의 예비모임에서 내가 만장일치로(4표 중 3표) 이 그룹의 대표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알롱, 페네, 카닥스 신부들이 오늘 새벽 3시에 도착했다. 신학생들은 모두 첫 두 개의 기차 편으로 떠났다.

5월 2일(금)

베르모렐, 라크루, 뤼카 신부가 도착했다.

5월 4일(일)

모두들 왔다. 페랑 신부는 아직도 피곤한데 피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로베르 신부에게 매일 아침, 저녁 집에서 식사할 것을 허락했다.

5월 5일(월)

저녁 6시 30분에 피정 시작. 성체강복을 하러 대성당에 들어가면서 페랑 신부가 고해실에서 병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 그를 로베르 신부 댁으로 데리고 가서 의사를 부르게 했다. 밤새 그를 돌보지 않고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다. 나는 즉시 성당에 들어가야 했으므로 그가 병원으로 옮겨졌는지는 모르겠다.

5월 6일(화)

페랑 신부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두 번째로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 로베르 신부가 그에게 종부성사를 주었는데, 그는 좋아지고 있다. 피정이 계속되고 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환대'입니다.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홈스테이 제공하기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봉사 참여하기

본당에 처음 오는 청년들을
맛있하고 소개하기

청년들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2026년 한 해 동안 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월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상은 교구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최영수 요한 대주교 (2009년 8월 31일 선종)
- 김문옥 요셉 신부 (1941년 9월 1일 선종)
- 이명우 야고보 몬시뇰 (1984년 9월 1일 선종)
- 박상태 루도비코 신부 (2004년 9월 3일 선종)
- 김규태 디모테오 신부 (2004년 9월 3일 선종)
- 장태식 리노 신부 (2012년 9월 3일 선종)

주간 교구 행사 및 미사안내

31 월 | 사제 연중피정 4차(9월 4일까지, 한티피정의집)

9.1 화 | 창조시기_개막미사, 19:30 내당성당(김종강 대주교님) | 창조시기_강 전시「강은 흘러야 한다」(10월 4일까지, 교구청 본관 로비)

2 수 | 평신도위원회,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합동회의, 18:00 교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

5 토 | 1대리구 4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태전성당 | 후원회원의 날 감사미사, 17:00 관덕정(김종강 대주교님)

우리 집에 성모당을 모십니다!

교구 신청사 축복 · 역사박물관 개관 기념

대구대교구의 상징, 「성모당 미니어처」 사전예약 특별판매



■ 사전예약 특별가

◆조명형_환조 ~~150,000원~~ → 100,000원 ◆비조명 벽걸이형_부조 ~~120,000원~~ → 80,000원

규격 | 조명형_환조 | 240mm(가로)×180mm(높이)×116mm(폭) | 재질_합성수지(레진) | 무게_1.1kg
비조명 벽걸이형_부조 | 240mm(가로)×176mm(높이)×58mm(폭) | 재질_합성수지(레진) | 무게_880g



■ 사전예약 기간 2026년 9월 30일(수)까지

■ 문의 및 신청 문화홍보국 ☎ 053) 250-3048 / jubo@dgca.or.kr

가정에 성모당 미니어처를 모시는 것은 성모님의 전구 안에서 믿음과 평화를 간직하는 작은 성지가 집 안에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찾는 이들에게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성모당 미니어처는 예약만료(9월 30일)이후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안내

'박해가 맺어준 프랑스 신부와 조선 신자의 우정'
조선을 사랑한 이방인, 기억되다

기간 2026.11.27.(금)까지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2층 김조자기획전시실(효성캠퍼스)

관람시간 평일 9:30~16:30(16:00 입장마감), 토요일 10:00~15:00

특별전 기간 평일과 토요일은 개관,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 문의 850-3282~4

*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VR 전시관람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도회 성소 | 피정 알림

예수 성심 피정(1박 2일)

침과 회복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는 동행

기간: 9.11(금)~12(토)

장소: 엘리사벳집(신나무골성지)

신청: 예수성심시녀회, (010)3154-0407

원로사제들과 함께하는 진목정 성지 피정

9.12(토) 10:00~16:00: 전광진 엘마노 신부

신청: 인터넷 사이트와 아래 QR코드



▶ 피정 신청
QR 코드

예수마음기도 무료 피정

일시: 9.17(목) 14:00~17:00

장소: 성김대건성당(황금동)

대상: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싶은 분

신청: 예수마음선교회, (010)9620-5603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침과 함께

올레길포함: 10.1~3 / 10.2~4 / 10.13~15

10.17~19 / 10.23~25 / 10.28~31 / 11.1~3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9.17~19 / 10.7~10

문의: (064)796-4182 / (02)773-1455

제주 강우일 주교 '푸른꿈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서 침, 성지순례, 자연순례, 말씀초대

기간: 10.22~24 / 11.10~12

장소: 제주 이시돌피정의집 / 주최: 한통사

대상: 개인, 가족, 소단체, 본당구반장

문의: (010)9670-9775 / (010)2231-2074

순교와 그리스도의 사랑

1차: 11.4(수) 15:00~5(목) 13:00

2차: 11.18(수) 15:00~19(목) 13:00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자 / (010)6791-0071

단체 | 일반 | 기타 알림

대구대교구파티마의세계사도직

첫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일시: 9.5(토) 10:00 썰기도, 11:00 미사

장소: 성모당

재속프란치스코회 신입회원 모집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형제애를

나누는 곳,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라

함께 걸어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9.11(금)까지 / 대상: 53세 미만

문의: (010)4331-0119

하느님 자비의 기도 모임

일시: 9.1(화) 13:00~16:00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내용: 성시간, 유해친구, 강의, 미사

문의: 팔로티회, (010)3824-0333

대구성령새신봉사회 738차 성령 묵상회

기간: 9.11(금) 12:30~13(일) 18:00

장소: 월막피정의집(성령회관대성전)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1:30

신청비: 14만원 (교재비 별도)

문의: (054)954-0951 / (010)8996-8037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원서접수: 9.7(월)~11(금)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

상담심리) / 문의: (043)270-0100, 0109

바오로딸 문화영성프로그램

기도훈련 6주 9.9(수)~ 14:00~16:00

영어로복음읽기 9.9(수)~ 18:30~20:00

기타기초4주반 9.15(화)~ 19:30~20:30

신청: (010)6681-5185

행복학교 교육생 모집

나와 가족의 참 행복을 위한 학습과 훈련

개강: 9.9(수) 10:00 / 하루 3시간, 총 14회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명동

비용: 30만원(분할)

문의: (010)3801-3416

마음으로 책읽기(독서치유)

독서치유를 통한 신앙성숙, 정신건강 증진

기간: 9.3~10.29(매주 목) 10:00~12:00

인원: 10명 / 8회 / 비용: 15만원

장소: 관덕정 / 주최: 성바오로수도회

신청: 안기주 수사, (010)8847-8396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일시: 9.5(토) 11:00(첫토요일 11:00)

장소: 카카오톡 오픈채팅

“온라인묵주기도모임” 검색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4882-9674

그리스도의례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캐나다 성모성지 (9박 10일)

11월: 멕시코&칸쿤 성모성지 (10박 11일)

문의: (010)5735-4578

배론성지 내 '은총의성모마리아기도학교'

피정 및 대관 신청 안내

내용: 본당 혹은 단체, 필요에 따라

피정 신청 가능(위탁 피정, 자체 피정)

인원: 최대 160명(숙식 제공)

문의: (043)651-4563, <https://baeron.or.kr>

제36회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 공모

부문: 방송영화, 뉴미디어, 신문잡지출판,

공연예술(2025.10.1~2026.9.30 발표 작품)

제출: 10.15(목)까지(<https://cmca.cbck.or.kr>)

문의: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02)460-7625, www.cbck.or.kr

교구 | 대리구 알림

창조시기 강 전시

"강은 흘러야 한다"

일시: 9.1(화)~10.4(일)

장소: 교구청 본관 로비

문의: 교구 생태환경부, 250-3072

시설 | 기관 알림

가톨릭신학원 성경·신학 강좌 수강생 모집

신학과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열려 있습니다

장소: 남산동 신학대학 강의동

문의: 660-5105

다음 카페: 대구가톨릭신학원

앞산밀복카페 가을강좌 개강: 9.1(화)

강의 일정: cafe.naver.com/apbcafe

장소: 남구 대명로 182, 4층

문의: 622-1900

※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강사초빙 서류접수

대상: 2027년 상반기 여성아카데미 강사

접수: 강사위촉신청서류, 증명서류

마감: 10.30(금)까지

문의: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 입학생 모집 (9.7~11)

온라인으로 집이나 직장에서 4년제 졸업

고졸 이상 시험 없이 누구나 / 국가장학대상

등록금 무료 / 학과: 복지서비스,

상담심리, 창업경영, 바이오융합학과

문의: 850-3117 / (010)8560-5814

대구가톨릭대 미래라이프대학 수시모집

모집: 9.7(월)~11(금) 18:00까지

학과(4년제): 뷰티케어, 건강식품관리,

원예치료, 한국어다문화, 미래자동차부품공학

※ 국가장학대상 등록금전액지원(8분위까지)

※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 859-4103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2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25만원

12.22 필리핀 (5일) 195만원

(2027) 2.2 멕시코 과달루페 (8일) 585만원

문의: 428-5004, www.cttour.org

천주성삼병원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인공지능 3.0T MRI 도입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진료

중증외상센터 교수경력 전문의

척추 수술적 / 비수술적 치료

문의: 790-1000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8월 31일(월) ~ 9월 5일(토) 6:50, 16:50, 23:50 김세호(바오로) 신부

개원 41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심리프팅·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불면증 건강 필수템

기적의 맨발걷기 상자

대한민국 우수 특허대상 신소재
친환경 제올라이트볼

"제올라이트볼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표이사 김희정 아네스

네이버, 쿠팡 1551-2088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산부인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

건강검진센터 | 응급실 24시간 운영

내과·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

진료 예약 및 문의 | ☎ 053) 320-2500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시간> 4시간 교육 후 이수증 즉시발급

월~금 오전9시~오후1시, 오후2시~오후6시
토/일 오전9시~오후1시 **매일교육 실시**

취약계층 무료교육지원정책 수행

대구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2층
1호선, 3호선 명덕역 앞

대표 김경태 바오로

대구 경북 교육장 053-218-7000

백두상회

우리 동네 맛있는 습관!

살맛나는 신선함, 오늘도 백두상회

대표 허재훈 (마티아)

수술 전문 안과

더블유 W안과

053-633-0123 최우근(펠릭스)

망막 / 백내장 / 녹내장 / 안성형
상인역 1,2번 출구 다이소 3층

9년 연속 당뇨병 고혈압 우수기관
공단무료검진 / 위대장내시경 / 보존위탁병원

수연합내과

경북대 외래교수 / 원장 김건현 (라파엘)

상인역 053) 642-7575
투석50석 642-7576

DOCKIM

도안김연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혈액투석
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람(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앞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김앤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파킨슨병 / 치매
뇌혈관질환 / 손발저림·떨림 / 통증

원장 김성제(베네딕토) 신경과전문의 | 의학박사

감삼역 3번 출구 053)625-8899
40m(시민광장 건물) 5층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분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크림·로션·스킨·샴푸·세안비누

투스팅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김정범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전문의 김정범(대건안드레아) 동산병원 정년퇴임

우울증 | 불안장애(공황전문) | 불면증

청라언덕역 9번 출구에서 동산병원 방향 도보 4분
대구시 중구 달성로 26 | 2F ☎ 053-253-0600

☑ 동산병원 주차장 이용 가능

대구안과의원

조영수 (다미아노) · 윤경철
홍정음 (대건 안드레아) · 정성중

서부정류장 역 관문시장 옆
☎ 053-651-2233

다마을방상

줄서는 맛집!

4호점

전수창업 모집

대표 최준우 미카엘

☎010-3910-8849

메가원약국

판매전문 약국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68길 6

Tel. (053)982-1123

김도연(살레시아) 박성열(알로이스)

Shin & Lee
Violins and Bows

신앤리 현악기

대표 신진웅 (안토니오)

이탈리아 코레모나 국립 현악기 제작학교 졸업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판매 | 수리 | 제작

☎ 010 8687 6001

☑ 대구 남구 중앙대로 47길24 1층(명복예고 앞)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